# 만능 안전율 계산기

2018020

박경민

https://github.com/2018020Park/almighty\_safety\_calculator.git

# 1. 계산기의 목적

안전율의 공식은 '안전율 =  $\frac{71 - 700 - 700}{61 + 100}$  이다. 단순히 안전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허용응력과 기준강도를 계산하는 계산기도 만들어보고자 이 계산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 계산기는 안전율을 계산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관리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안전율 관련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계산기의 네이밍 의미

단순히 안전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허용응력과 기준강도도 손쉽게 구하는 계산기라는 의미에서 '만능 안전율 계산기"이다.

# 3. 계산기 개발 계획

class, if, while, int, input 함수들을 사용할 것이다.

#### class함수: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를 각자 만들어 class함수로 묶어 둘 것이다.

#### if함수:

사용자에게 어떠한 계산기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고 사용자가 답했을 때, 원하는 계산기 블록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 while함수:

안전율은 무조건 1보다 커야 한다. 그렇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보다 작으면 허용응력과 기준강도를 다시 입력하게 해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할 것이다.

## int함수:

사용자가 계산을 위해 입력한 값을 정수타입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input함수: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기, 값을 입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4. 계산기 개발

# 4.1 계산기 개발 과정

```
의미에서 Iclass Safety_Calculator:
안전율
          계산기라는
                                  def __init__(self, x, y):
Safety_Calculator라고 작명했다. x와 y는
계산하기 위한 변수를 입력받는 장소로 설정
했다.
첫 번째로 안전율 계산기이다. if함수를 넣어
계산한 값이 1보다 크면 결과값이 바로 출력
되도록 했고, 1보다 작다면 일단 결과값을
출력한 다음 계산을 다시 하게 했다. 또한
while반복문으로 1보다 큰 수가 나올 때까
지 반복하게 만들었다.
허용응력 계산기이다. 응력이 영어로 stress
                              lef stress(self):
이기에 stress로 작명했다. 입력받은 값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했다.
기준강도 계산기이다. 강도가 영어로
                             def strength(self):
                                print(f"기준강도는 {self.x * self.y}입니다.")
strength이기에 strength로 작명했다. 입력
받은 값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했다.
input을 써서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기를 입 n = input("계산기 압력. ('안전을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 중 탁1)"
력할 수 있게 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계산기에 맞추어서 class로 묵어 둔 계산기로 보내는 과정이다. or을 사용한 이유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안전율 계산기'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or을 써서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와하지 않았을 경우 둘 다 대비했다.

if를 사용하여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에 맞추어서 class를 호출할 수 있도록 했다.

```
if m == "안전을 계산기" or m == "안전율계산기":
  k = int(input("기준강도 입력"))
  l = int(input("허용응력 입력"))
  safety_factor = Safety_Calculator(k, l)
  safety_factor.safety()

elif m == "허용응력 계산기" or m == "허용응력계산기":
  o = int(input("안전율 입력"))
  p = int(input("가준강도 입력"))
  allowable_stress = Safety_Calculator(o, p)
  allowable_stress.stress()

pelif m == "기준강도 계산기" or m == "기준강도계산기":
  u = int(input("안전율 입력"))
  e = int(input("안전율 입력"))
  basic_strength = Safety_Calculator(u, e)
  basic_strength.strength()
```

# 4.2 에러 발생 지점

계산기 입력.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 중 택1)>?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입력>? 50 허용응력 입력>? 10 안전율이 5.0이므로 1보다 높습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사진과 같이 계산기 입력란에 '허용응력 계산기'라고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율 계산기'가 호출되었다.

## 4.3 에러 발생에 대한 해결책

```
### if m == "안전율 계산기" or "안전율계산기":

| k = int(input("기준강도 입력"))
| l = int(input("허용응력 입력"))
| safety_factor = Safety_Calculator(k, l)
| safety_factor.safety()
```

에러지점을 검토해 본 결과 or을 사용하고 or 뒤에 'm =='을 붙이지 않아 에러가 발생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f m == "안전율 계산기" or m == "안전율계산기":

k = int(input("기준강도 입력"))

L = int(input("허용응력 입력"))

safety_factor = Safety_Calculator(k, l)

safety_factor.safety()
```

해결책을 적용한 후엔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 4.4 동작 결과

계산기 입력.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 중 택1)>? 안전율계산기 기준강도 입력>? 50 허용응력 입력>? 10 안전율이 5.0이므로 1보다 높습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1. 안전율 계산기 사용 (1)

안전율과 계산기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잘 작동했다.

계산 결과가 1보다 높았을 때의 결과이다.

계산기 입력.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 중 택1)>> 안전율 계산기 기준강도 입력 2 10 허용응력 입력 2 50 안전율이 0.2이므로 1보다 낮습니다. 허용 할 수 없습니다. 재입력 하십시오. 기준강도를 입력하십시오.>? 20 허용응력을 입력하십시오.>? 50 안전율이 0.4이므로 1보다 낮습니다. 허용 할 수 없습니다. 재입력 하십시오. 기준강도를 입력하십시오.>? 50 안전율이 0.4이므로 1보다 낮습니다. 허용 할 수 없습니다. 재입력 하십시오. 기준강도를 입력하십시오.>? 50 허용응력을 입력하십시오.>? 50 허용응력을 입력하십시오.>? 10 안전율이 5.0이므로 1보다 높습니다. 허용 가능합니다.

2. 안전율 계산기 사용 (2)

계산 결과가 1보다 작았을 때, 계산기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엔 계산 결과가 1보다 커졌을 때, break로 인해 작동을 멈추는 것을 확인했다.

계산기 입력.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 중 택1)>? 허용응력 계산기 안전율 입력>? 5 기준강도 입력>? 10 허용응력은 2.0입니다.

3. 허용응력 계산기 사용

10 / 5 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계산기 입력. ('안전율 계산기', '허용응력 계산기', '기준강도 계산기' 중 택1)>? 기준강도 계산기 안전율 입력>? 2 허용응력 입력>? 5

4. 기준강도 계산기 사용

기준강도는 10입니다.

2 \* 5 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 5. 계산기 개발 후기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을 말해보자면, '머리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떠다니는데, 머리에 쥐가 나질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머릿속에 있는 함수를 정리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것을 활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컴퓨터프로그래밍 실습II 중간고사를 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중간고사 맨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서 프로그래밍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계산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계산기를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개발 도중에 챗gpt의 도움을 받을까 수백번 고민이 되었지만, 나 자신에게 오기가 생겨 결국엔 성공할 수 있었다. 만들고 나니 참 별것 없는 코딩이 짜였는데, 이 간단한 것을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분들에게 존경심이 들며 내가 갈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분들 파이팅입니다..!